

“김치냉장고 뚜껑형, 스탠드형보다 전기요금 적게 나와”

소비자원, 6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저장온도 성능 품질 전제품 우수 설치 주변 온도 따라 절감 차이 커

(제품 형태별 에너지소비량 비교) (단위: kWh/월, 원, kg)

제품 형태	월간 소비전력량	연간 전기요금	연간 CO ₂ 배출량
스탠드형 평균	15.5	29,800	79.2
뚜껑형 평균	8.9	17,100	45.6

김치냉장고는 스탠드형보다 뚜껑형 제품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냉장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도 컸다.

(주위온도 별 연간 전기요금 비교) (단위: 원)

제품 형태	주위온도 상승 시 연간 전기요금 증가액 (증가배율)		
	16℃ → 25℃	25℃ → 32℃	16℃ → 32℃
스탠드형 평균	8,800 (1.5배)	14,400 (1.5배)	23,200 (2.2배)
뚜껑형 평균	6,700 (1.7배)	8,500 (1.5배)	15,200 (2.6배)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6개 제품의 에너지소비량, 김치 저장온도 성능, 소음 등 품질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소비자원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스탠드형 3개(삼성전자 RQ48A94W1AP, 위니아 BDQ48HKLKCN, LG전자 Z492GGB171S), 뚜껑형 3개(삼성전자 RP22A3231Z3, 위니아 BDL22HKSXS, LG전자 Z22MTT151) 제품 등 총 6종이었다.

평균 15.5kWh) 대비 평균 42.6% 적었고, 제품별 월간소비전력량은 스탠드형 중에서는 LG전자 제품(14.3kWh)이, 뚜껑형 가운데는 위니아 제품(8.5kWh)이 가장 낮았다.

김치냉장고 설치 주변 온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 차이가 컸다.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의 주위온도가 16℃→25℃로 상승 시 연간 전기요금은 평균 1.7배, 16℃→32℃로 상승 시 연 평균 2.6배까지 늘었다.

스탠드형과 뚜껑형 유효용량은 2배 이상 차이났으나 김치용기 저장용량은 유사했다. 김치용기 저장용량은 스탠드형(평균 159.1L)이 뚜껑형(평균 140.7L)의 1.1배(18.4L 차이)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에너지소비량은 뚜껑형 제품이 스탠드형 제품의 절반 수준으로 같은 용량의 김치를 저장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구입 가격은 스탠드형(323만원~330만원)이 뚜껑형 제품(124만원~144만원)보다 2배 이상 비쌌다.

뚜껑형 제품 월간소비전력량 평균은 8.9킬로와트시(kWh)로 스탠드형 제품(평

제품 구입 가격은 스탠드형(323만원~330만원)이 뚜껑형 제품(124만원~144만원)보다 2배 이상 비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중앙아 물산업 수출 기반 마련

투르크메니스탄서 열리는 협력토론회에 대표단 파견

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물류 △보건/의약품 △기후변화/환경보호 △정보통신기술 △교육/과학 △관광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환경부가 11월1~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제16차 한국-중앙아시아 협력토론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 국내기업 물산업 수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환경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소속 80여 명으로 구성된다.

2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리는 '제5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사업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선진 물 기술 및 물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물관리위원회 등 현지 정부 기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물산업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첫날인 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물산업협회와 함께 토론회(기후변화·환경보호 부문) 참석자들을 대상,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및 기술을 공유한다. 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은 대륙성 사막기후의 물이 부족한 국가”라며 “방문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앙아 협력 토론회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경제,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정례 다자협의체이다. 5개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호주, 에너지공급망·CCS 협력 강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촉진 개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호주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에도 힘을 모은다.

또 핵심광물, 천연가스, 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와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처리·저장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1980년부터 개최돼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 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양국 간 CCS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에 필요한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부대행사로 열린 '제4차 한·호 신에너지 포럼', '한·호 수소-CCS 비즈니스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주의 대표적인 CCS 프로젝트인 쉐브론사의 고르곤 현장을 우리 기업·기관과 함께 방문해 향후 우리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CC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기업들은 수소, CCS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韓 기업 해외투자·진출여건 마련할 것”

산업부, IPEF 6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청정경제 협력·공정 경제환경 조성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필라1 협정 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경제협력, 외국인의 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 공급 관련 절차 합리화 등 서비스 국내규제 등 11개 세부 분야별 협정이 포함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역대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추진 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IPEF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약체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작년 5월 출범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대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필라3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대 청정경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확대, 시장 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라4 협상에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무역·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분야를 포함해 필라1(무역) 분야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필라1 협상에서 역대 규범을 선진화

/세종=한용수 기자

외국인력 특화훈련 4000명으로 대폭 확대

고용부, 4주 이상 직무·언어 교육 제공

영양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방문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차관은 이날 저숙련 외국인력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조선사 6곳의 현장 애로 사항 등을 수렴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대한조선이다.

정부가 인력수출국의 현지 직업훈련 실시 국가 수를 비롯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인원, 외국인 재직자 훈련직종 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특화훈련 대상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내년에 4000명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조선업 대상으로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개 조선사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4주 이상의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연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이 훈련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훈련 인원을 40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력 수요 분석을 고도화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규모를 예년보다 이른 11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